

# AGAIN 기도회 특별메세지 VI

##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면의 의심을 만든다.

### 1. 믿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으로부터 나오기)

[히브리서 11:1-2]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은 믿음에 대한 것이다.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히브리서 11:1절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즉, 증거와 실상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사실이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2절에 보니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한다. 증거는 재판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어떤 일을 확증 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없다. '증거재판주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 원칙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말한다.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은 '존재'에 관한 다툼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에 관한 다툼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하지만, 세상은 믿음 없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힘 있게 선포하는 자기 확신의 외침이 아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증거'로 존재의 사실을 증명한다. 믿음도 결국 '증거'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이다.

### 2. 자연주의 vs 초자연주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증거를 만드는 믿음은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초자연주의를 거부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않는 자연주의(Naturalism)에 기반한다. 그 경계선을 벗어나는 모든 일은 허상이며, 환상이며, 허구일 뿐이다. 믿음으로 얻어진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기독교가 받는 가장 큰 공격은 초자연적 세계를 거부하는 세계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공격도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왔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공격은 언제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3. 복음서의 중요성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중요하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사건 중심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에서는 그 기록 목적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요한복음 20:30-31]

-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 기록하셨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여준다. 이 사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씨인'들이다. 나타난 씨인의 원뜻은 '그 일이 나타내교자 하는 의미'를 말한다. 복음서에 초자연적인 씨인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모든 씨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씨인'이라는 화살표가 지칭하고 있는 곳이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지도자들은 결국 그 씨인을 통해 지칭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형시킨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의 결정체이다.

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일으켜 그들을 격분시켜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격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했던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진 '의심'이라는 뿌리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 결국 그 일을 통해 사람의 마음 안에 '의심'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다.

#### 4. 의심

**의심(疑心)은 특정 대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다. 의심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 [위키백과]

의심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 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 생긴 것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같이 살 수 없는 것이다. 관계에 의심이 생기면 결국 갈등과 분쟁으로 간다. 뭘 해도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결국 깨어지는 것이다.

그 의심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결국 관계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는 형상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로 마음에 남는다.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믿지 못함을 말한다.

#### 5.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의 모든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위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의 하나이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한다. 엄청난 선포이다. 그 이유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엄청난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셨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 되었다. 내 문제, 고통, 어려움, 즉 내 삶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문제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셨고, 공감하셨고, 보듬으셨고, 싸매주셨다.

[시편 147: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 6. 공감이 의심을 깨다.

의심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공감'되고 있을 때이다. '공감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며, 우리와 공감하신 예수님의 삶이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성이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했다. 그 안에 있던 의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는 자유할 수 있었다. 내면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의심이 깨어지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어게인 호렙산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출애굽 당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왜 우리가 모였는지, 왜 내가 조이풀에서 신앙 생활하는지 다시 정렬하자. 그리고 의심 없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